

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③	①	①	③	①	②	②	④	①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②	②	④	④	①	③	④	②

해설

- detest: 싫어하다, 혐오하다 = hate, abhor, loathe, abominate
- uncanny: 이상한, 기이한 = strange, odd, eccentric, bizarre, weird, peculiar
- 빈칸 뒤에 왜 한불 받고 싶다고 했는지를 생각해보자 -> 아마 맞는 사이즈의 옷이 없다고 했을 것이다.
- 혈압 측정기의 사용법에 관한 내용이다. 역시 빈칸 뒤를 보면 이제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거나 말도 하지 말라고 하므로 -> 의 이상 혈압 측정기 사용을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다음 단계를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다.
- ① 접속사 and 뒤에 부정어구인 neither가 있으므로 당연히 도치를 시켜준 문장으로 쓰기 때문에 맞는 문장이다.
② 전치사 뒤 관계대명사 that을 쓰지 않는다. 오류 문장이다.
③ 1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사실이니 당연히 과거로 써야 한다. had +p.p 를 과거로 쓸 것
④ 5형식 가목적어 진목적어 문장이다. made it difficult for scientists to 부정사
- ② Hardly had S p.p when/before 주어 동사 기본패턴 문제이다. 따라서 Hardly did she enter -> Hardly had she entered로 바꿀 것
-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한 사람을 더 도와주려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 위쪽 Regardless of부터 문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고통 받을 때 타인에 필요나 고통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는 문맥이 되어야 한다. ② more attentive to 을 선택한다
- 중국 백화점이 모든 편의 시설이 갖추어서 성공하고자 하나, 경영진에서는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했고, 그래서 대형 용 모양의 미끄럼틀을 만들었다고 했다는 내용이다. 빈칸 앞에 보면 손님들을 위한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니 공간활용을 위한 대형 미끄럼틀이 나쁘지 않다 라는 내용이 적절하다
- 미래 발전에 관한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겠지만, 실제로 어느 것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빈칸 문장을 보면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역접의 접속부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빈칸 문장의 내용은 앞 문장의 내용과 앞 내용의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예견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미래에 일어날지에 관한 합리적인 예측을 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문장이 되어야 한다.
- 글의 소재는 taste bud (미뢰) 관한 내용이다. 문장 중간에 읽어보면 children have the keenest sense of taste라는 문장으로 보아 ③번 문항이 일치한다.
- put up with: 참다, 견디다 = bear, stand, endure, tolerate

- take after : ~를 닮다. 라는 뜻 -> (아기를) 돌보다 는 look after 로 표현한다.
- 글 첫머리에서 드라마는 행동하는 것, 존재하는 것 그리고 평범한 것이라고 했으며 매일 일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글의 제목은 ②번이 가장 적절하다
- 3번째 줄 But 다음 문장을 보면 세계화로 인한 경제 성장은 부유한자들만 혜택을 받고, 가난한자들은 배제시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문장을 통해서 ②번이 가장 적절하다
- ④ 가정법 과거 완료의 구문이다. 주절에서 should have achieved ~ 했어야 했는데 라는 과거 유감으로 해석한다. 주어진 문장은 성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 -> would not have achieved such a splendid result 로 해야 한다.
- ④ 너무~ 해서 ~하다라는 구문은 흔히 so ~ that 주어 cannot 혹은 too ~ to 부정사로 나타내야 한다. -> so를 too로 고쳐야 한다.
- 귀와 대조적으로 눈에 의해 얻어지는 정보의 양은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는다 했다. 귀와 눈으로부터 오는 정보의 양이 차이를 비교하는 글이다. 그러니 빈칸 (A)에는 눈과 귀의 신경 연결망의 크기를 비교한다는 개념이 들어가야 하며, 빈칸 (B)에는 시신경이 달팽이관 신경보다 18배 더 많은 신경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므로, 눈이 훨씬 더 정보를 처리한다, 쓸어 모으는 이 필요하기 때문에 sweep up을 골라야 한다.
- 주어진 글의 전반적 내용은 아동도서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보기문항 중 ③번이 갑자기 출판 업계의 두드러진 봉사에 대한 시상식 지면을 말하므로 어색한 문장이다.
- 제시된 문장 앞에는 This inequality(이런 불평등)이 답이 되는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 제시된 문장에 앞부분에는 불평등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보기 ④번 앞 문장을 보면 사냥꾼이 사냥한 동물을 친족들에게 좋은 부분을 먼저 나눠주고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나쁜 부분을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내용이 바로 불평등임을 알 수가 있다.
- 우선 주어진 문장에서 그룹 치료 접근법에서 가장 혁신적인 것은 심리드라마라는 내용이며, 이는 프로이드의 세계관과는 다른 것이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니 바로 다음에는 (B) 주류가 되는 견해와의 그 사람의 이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내용이며, 또한 그는 인간 본성이 창의력이라고 했으므로 그 다음으로 (A) 그러나 그는 믿기를 창의적이 되는 것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사회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이어져야 한다.

총평

난이도

- ☐ 매우 어려웠다. ☒ 다소 어려웠다. ☐ 평이했다.
☐ 다소 쉬웠다. ☐ 매우 쉬웠다.

총평 이번 국가직 영어는 수험생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시간이 부족했던 시험이라고 보입니다. 독해에서 특히나 빈칸완성형 문제의 경우 4문제가 출제되면서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을 꺼라 생각됩니다. 독해 지문은 길다고 느끼기에 상당한 심적 부담이 있었을 꺼라 짐작이 됩니다. 허나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인 수험영어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꼭 읽어내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대충 흘려서 읽는 연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어휘(숙어) - 4/ 생활영어-2 / 어법(영작) - 4/ 독해 - 10 문제가 출제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휘문제는 detest(싫어하다, 혐오하다), uncanny(이상한, 기이한), put up with(참다, 견디다), take after(닮다) 등 역대 수험영어 기출문제에서 자주 빈출이 되던 어휘에서 출제 되었습니다. 다만 기출어휘 자체를 그대로 출제하기 보다는 빈출어휘를 중심으로 한 유의어 암기를 꾸준히 했던 학생이라면 크게 문제없이 답을 맞춰냈을 겁니다.

생활영어 문제 역시 과거 관용표현 중심으로 출제되었던 것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정답을 맞춰내는 문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법문제의 경우에는 문제 출제 포인트는 무난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영작 문제는 주어진 한글해석을 꼼꼼히 읽어야 했어야 했습니다. 실수를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독해문제의 경우에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제목, 주제, 요지 문제의 유형을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주어진 지문을 다 읽지 않고도 답을 맞춰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글 읽는 연습을 한 학생이라면 문제없었을 겁니다.

특히나 수험생에 입장에서 빈칸 완성형 문제와 글의 순서를 묻는 문제가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꺼라 생각됩니다. 주어진 글의 흐름 또한 글속에 반전이 많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글의 큰 흐름 잡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당연히 충실한 어휘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수험영어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을 다시금 명심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20문제를 시간을 정해서 풀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시험 보느라 수고하신 여러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지방직, 서울시 시험이 코앞에 있습니다. 국가직 시험을 거울삼아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충분한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끈질긴 노력입니다. 응원합니다.